발간자료

• **자동차/이차전지(Overweight):** 현대기아 EV 및 Tesla의 밸류체인 수혜 기대. 기아, HL만도,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의 비교우위 국면 예상. 기아는 3월 3.9만대 전기차 판매 기록, 9개에 달하는 EV라인업을 기준으로 판매 레버리지가 하반기 갈수록 극대화. 3월 기준 프랑스, 독일 전기차 수요는 YoY +69%, 66%로 폭등. HL만도는 자동차 유니버스 중 유일하게 1Q26에 시장 기대치에 도달 가능. 엘앤에프는 국내 소재업체 중 유럽 EV수요 반등의 최대 수혜
(자동차/이차전지 유지웅)

• **전기전자(Overweight):** 4월 기판 업종 이슈 3가지 정리. 이슈 ① ASIC 사업자 동향: 외부 판매 가속화. 최근 구글과 AWS를 중심으로 자체 ASIC의 외부 고객 대상 직접 판매 모델 전환 본격화. 이는 ASIC 수요의 결정 변수가 내부 투자에서 실제 고객 수요로 이동하는 변화로 해석 가능. 이슈 ② 기판 밸류체인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 확대. 고급 유리섬유(T-Glass), M8/M9급 고사양 CCL, ABF 필름 등 주요 원재료에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반. 최근 FC-BGA 판가는 원가 상승분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약 10% 이상 상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 이슈 ③ 삼성전기 FC-BGA 대규모 투자(1.8조원) 가시화. 기존 및 신규 거래선 전반의 중장기 수요 가시성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 삼성전기 외에도 글로벌 FC-BGA 업체 전반의 CapEx 컨센서스 상향되는 중. 소재•장비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반으로 실적 개선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 삼성전기•대덕전자 Top-Pick, 장비사 기가비스, 소재사 덕산하이메탈 선호
(전기전자 김연미)

• **JP Morgan Chase:** 1Q26 순이익 165억달러(YoY +12.6%, QoQ +26.6%)으로, 컨센서스를 +8.3% 상회. 시장 예상보다 (1) 비이자이익 크게 증가했고, (2) 대손비용 축소. 순이익 증가로 일단 금분기 EPS, ROE 등 주요 지표 상승. 호실적 감안하면 주가는 아쉬움. 향후 자본 활용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작용
(금융 김지원)

• **시프트업_Buy/4만원:** 1Q26E 연결 매출액은 409억원(-3.1% YoY), 영업이익은 228억원(-13.1% YoY)로 컨센서스 하회 전망. 동사는 일본 개발사 언바운드(Unbound)의 지분을 전량 취득하였으며 추가 출자는 없을 전망. 자체 개발 중인 <프로젝트 스피릿>과 <스텔라 블레이드 2> 외에 타이틀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2026년은 신작이 부재하고 언바운드 인수로 영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 하향 조정에 따라 적정주가 40,000원 하향
(인터넷/게임/레저 김혜영)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8.7%	HOLD : 11.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